

忠北地域 勞動謠에 나타난 意識 研究

延 海 辰*

차 례

- | | |
|------------------|----------|
| I. 머리말 | 4. 職業意識 |
| II. 勞動謠의 價値 및 分布 | 5. 戀慕意識 |
| III. 勞動謠에 나타난 意識 | 6. 共同體意識 |
| 1. 社會意識 | 7. 現實認識 |
| 2. 家族意識 | IV. 맺음말 |
| 3. 忍從과 志節 | |

I. 머리말

민요는 민중의 삶이 드러난 체험의 문학이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共同體 意識을 표출한 대표적 民衆文學이다. 곧 민요는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운율을 바탕으로 일반 민중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펼쳐 보인 民族의 노래, 共同體의 노래다.¹⁾

* 충북대학교 강사

1) 代表的인 民謠 概念의 정의는 다음에 나타난다.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7. P14.

周王山, 「朝鮮民謠概說」, 東洋프린트사, 1947. P6.

任東權, 「韓國民謠의 研究」, 宣明文化社, 1974. P73.

민요는 오랜 동안 구전되어 한 곳에 한 시대에 정제할 수 없는 특수한 문화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좁은 영토 안에서 주민의 잦은 이주로 인한 민요의 교류는 지역적 특수성과 함께 지역 간 그 넘나들이 심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민요는 지역적 특수성, 즉 그 지방에서만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향토성 짙은 민요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요는 명칭에 의해 改作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그때 그때의 즉흥적인 감정에 좌우되어 불러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락은 거의 유사해도 사실은 지역마다, 또는 창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즉흥적인 노래 속에도 그 지방의 특색이, 그리고 민중의 생활감정이 반영되어 있게 마련이다. 특히 지역민요에는 그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그로 인한 풍속, 향토적 기질, 생활양식이 溶解되어 있다. 지역민요에 대한 연구는 경상도²⁾, 전라도³⁾, 제주도⁴⁾, 강원도를⁵⁾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여타 지역, 특히 충북민요⁶⁾에 대한 연구는 微微한 편이다. 민요의 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 것과, 지역을 단위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민요 중에서 몇몇 특수한 민요를 예로 들어 한국민요의 의식 내지 지역민요의 성격을 논한다는 것은 일면적 고찰로 전반적인 특징이나 가

張德順 外 3人 共著,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9, P75.

- 2) 趙東一, 「敘事民謠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1970.
李在崑, 「慶南益德地方的 傳說 民謠 巫歌」, 단대국문학논집, 1975.
朴廷陽, 「慶北土俗歌謠의 發掘과 分析研究」, 안동교대논문집 10, 1977.
徐元燮, 「鬱陵島 民謠와 歌辭」, 螢雪出版社, 1979.
여영택, 「鬱陵島의 傳說 民謠」, 正音社, 1978.
- 3) 丁益燮, 「全南地方的 강강술래考」, 양주동박사고희기념논총, 1973.
朴順浩, 「강강수월래의 유래와 어원에대하여」, 전북향토문화연구소, 1979.
尹相烈, 「民謠로 본 農民의 性格形成研究」, 전북대논문집, 1979.
羅承晚, 「全南地域의 들노래 研究」, 전남대박사학위논문, 1990.
- 4) 秦聖麒, 「濟州道 民謠」, 제주민속문화연구, 1968.
金榮敦, 「濟州道民謠研究」, 동국대박사학위논문, 1983
左惠景, 「濟州傳承童謠研究」, 민요논집, 1988.
- 5) 延奎漢, 「旌善아리랑」, 문화인쇄사, 1968.
尹弘老, 「江原道民謠의 意味網」, 국문학논집, 1975.
徐丙夏, 「關東地方的 民謠에 관한 研究」, 관동향토문화연구, 1978.
姜騰鶴, 「旌善아리랑의 研究」, 집문당, 1988.
- 6) 朴進, 「忠北地方的 民謠에 관한 研究」, 청주교육대학논문집, 1977.
朴進, 申敬淳, 「忠北淸源郡 일원의 農謠에 관한研究」, 청주교대논문집, 1978.

치를 논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요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지역민요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선행된 다음 전국을 단위로 한 연구가 병행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을 때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민요 중에서도 특히 연구 성과가 미미한 충북지역 勞動謠의 저변에 내재된 特性 및 主題를 「忠北民謠集」을 바탕으로 導出하고자 한다.

II. 勞動謠의 價値 및 分布

노동요는 노동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존재한다. 또한 노동요는 민요 중 가장 原始的이며 동시에 本源의인 노래다.⁷⁾ 따라서 대부분의 민요가 노동과 不可分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민중의 노래이기에 노동요 속에는 그들의 꾸밈없는 의식과 극복의지, 삶의 애환과 감정이 들어 있다. 민요가 구비문학의 다른 어느 것보다 민중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⁸⁾ 노동요는 일을 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부르기도 했다. 노동요는 인간에게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훈훈한 분위기를 주는 음악적 정서적 의미를 준다. 곧 개인에게 일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삶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집단에게도 더 큰 용기와 질서 있는 노동의 능률을 가져오고 人和로 의 길을 열어주며 相扶相助의 공동체의식을 고무한다.⁹⁾

노동요에는 노동의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哀歡·價値·思想·意識·情緒 등이 꾸밈없이 들어 있다. 노동요는 원래 노동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노동하는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중요시되는 경향도 있다.

노동요의 기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동의 내용이나 동작 과정을 리듬에 맞추어 서술함으로서 그 활동을 자극 촉진하여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노동요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노동 동작의 離脫이나 弛緩

7)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수선사, 1948, P103.

8) 張德順 外 3人, 「口碑文學概說」, 일조각, 1971, P85.

9) 김무현, 「韓國勞動民謠論」, 집문당, 1986, P23.

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산발적인 성질의 집단노동에 일률적 호흡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효과를 높인다. 셋째, 노래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오락적 역할을 하여 노동의 고됨을 잊게 함으로서 노동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곧, 노동요는 노동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며 특히 집단노동을 할 때는 행동 통일을 위한 구령의 구실도 한다. 그리고 노동의 고달픔과 지루함을 잊고 즐겁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노동의 내용이나 노동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요의 의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계급투쟁의 의식이 뜻숨에 바늘끝 내밀 듯이 뾰족히 보인다¹⁰⁾든지 향락주의 사상과 도피적인 도교 내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양반계급이나 有産者의 無爲徒食을 조롱하는 노래,¹¹⁾ 또는 지주 양반에 대한 隱然한 反抗·復讐意識·羨望의 情¹²⁾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게 불행과 고난을 강요하는 男性的 特權에 항거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찾자는 女性解放의 요구¹³⁾라든지 愛情·勞動과 休息·享有·食慾·性·豊年¹⁴⁾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위 논의는 노동요를 婦謠와 男謠로 분류한 상태에서 나온 부분적 고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내기나 길쌈 노래 밭돌노래 등 극히 한정된 노래를 들어 민요 전반의 주제를 파악하고자 했다. 노동 주체인 개인과 그들 상호간에 맺어지는 사회관계 또한 그들이 자연적 개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원시적인 성격을 띠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공동체라고 불리는 사회관계는 그 성립에 있어서 이러한 자연적 노동 주체가 스스로 몸에 띠고 있는 원시적인 상태와 본질적으로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동체적 민중의식은 사회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이자 이념적 목적이 된다.

충북지역 노동요는 農業勞動謠·길쌈勞動謠·製粉勞動謠·採取勞動謠 순으로 발달되어 있다. 농업노동요는 충북지역 민요가 메나리목을 특징으로 하듯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을 때 부르는 노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논농사요는 모

10) 최철, 설성경, 「民謠의 研究」, 정음사, 1984, P156.

11) 최철, 설성경, 「民謠의 研究」, 정음사, 1984, P237.

12)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수선사, 1949, P133.

13) 趙東一, 「紋事民謠研究」, 계명대학교, 1983, P157.

14)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이우출판사, 1980, P301.

찌기·모내기·논매기를 중심으로 한 노래가 주류를 이룬다. 지형적인 여건으로 논농사요는 北部地域인 단양, 제천보다는 中部 以南인 청원, 진천, 보은, 영동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밭농사요는 밭매기·목화따기·메밀베기·보리타작을 중심으로 전지역에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산악지대가 많은 북부지역에 발달되어 있다.

길쌈노동요는 베짜기·물레질·삼삼기할 때 부르는 노래로 대체로 北部地域에서 南部地域까지 베짜기노래와 물레질노래가 퍼져 있어 婦謠의 왕성함을 알 수 있다. 제분노동요는 방아찧을 때 부르는 노래로 각 지역에 한 두 수 정도가 전할 정도로 微微한 편이다. 채취노동요는 고사리꺼기·나물캐기·고기떼기·나무할 때 부르는 노래로 고사리꺼기노래는 단양지역만 보이고, 평지나 야산을 무대로 한 나물캐기노래나 나무꾼노래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단양지역을 중심으로 뱃노래와 뱃줄다리는노래, 그리고 짐배노래, 띠뱃노래가 발달되어 있어 남한강 상류의 수상교통 발달과, 민중의 생업이 지리적 여건과 밀접함을 짐작할 수 있다. 띠뱃노래는 서울 광나루에서 단양, 영춘, 영월을 거쳐 정선까지 오르내리던 남한강의 소금배다. 띠뱃노래나 짐배노래 등의 뱃노래가 발달된 단양지역은 척박한 땅을 가진 만큼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독특한 농요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Ⅲ. 勞動謠에 나타난 意識

충북지역 노동요에 반영된 민중의식은 대체로 사회의식·가족의식·인종과 지질·직업의식·연모의식·공동체의식·현실인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에 노동요를 바탕으로 민중의식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내재한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1. 社會意識

민요에는 일하며 사는 즐거움이 두루 나타나 있다. 즐거움은 우선 일의 터전

이며 대상인 자연에서 생기는 것이다. 일반 시가에서는 자연이란 패배자가 돌아와 쉬며 바라보는 경치이지만, 민요에서의 자연은 생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소중한데 이 가능성은 노동을 통해 실현할 때 즐거움이 생긴다. 靜觀의 인 휴식의 즐거움이 아니라 사는 보람으로 가득 찬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즐거움이 생긴다. 노동으로 생산하면서 사는 민중의 생활은 생산은 없이 소비만으로 살아가는 양반의 생활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회 의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序列意識과 親疎意識으로 볼 수 있는데 친소의식은 다시 孝道·祖上崇拜·報恩思想·義理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하서열의식은 모든 생활의 규범과 실제 행위가 가족위주, 동족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그 집단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서는 상하의 신분질서에 따르는 서열의식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민중은 性別, 年齡, 美德의 有無 등에 의해서 상하서열의 기준을 삼는다.

----(상략)

대흥대관	웃조고리	초록대간	선을들러
아홉아들	열두팔을	앞세우고	뒤돌리고
모여서서	생각을하니	어디루가야지	살어날고
한군데를	돌러보니	포수가	총을들고
문을잡고서	앉았는데	또한곳을	돌러보니
방을달린	보라매가	예서떨렁	제서떨렁
또한곳을	돌러보니	사냥하는	모리꾼은
떡갈잎을	두다리며	월이호호	소리하네
암만해도	큰일난네	까투리란놈	씩나서며
이래서는	안되겠네	삼밭으로	들어가니
장삼대	쓰러지고	골골삼대가	끄덕하네

----(하략)¹⁵⁾

공유된 가치와 목표에 기초하여 구조화된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사회집단은 발전단계에 따라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친밀하고 중복적이며 안정된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적이고 전통적인 공동사회는 多元化된 사회구조 속에서 가족과 사회, 또

15) 忠淸北道, 『忠北民謠集』, 奎光印刷, 1994, P99.

는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의 합리적인 자기이익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이익사회로 변모했다. 이러한 집단역학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전통사회는 양반과 평민, 지배와 피지배의 대결구조를 가져와 집단 또는 개인 사이에 갈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상의 틀 속에서 억눌림을 당하는 민중은 항상 피해의식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전통사회의 민중은 인간적 부조리와 지배층의 억압 그리고 비리에 저항을 느끼면서도 신분적 상황과 뒤에 따를 비참한 결과 때문에 직접 저항을 하지 못하고 우회적인 수법을 빌려 그들의 사회의식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 口碑文學 중 노동요는 대체로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고 집단적인 표현이기에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비판적이고 저항적일지라도 비난받거나 구속받지 않았다. 다만 민중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대변했을 뿐이다.¹⁶⁾

위노래는 까투리노래로 弱肉強食하는 인간사회의 절박한 삶을 까투리에 건주어 풍자한 비판의식이 강한 민요이다. 먼저 민중의 막막한 삶을 恨歎調로 戲謔하고 있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민중의 생활은 피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근심에서 오는 답답한 심정을 열두 딸에 둘러싸인 참담한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봉건사회의 농민의 삶을 은연 중 나타내고 있다. 전통사회의 시대상과 견주어 본다면, 까투리는 힘 없고 나약한 평민 계층을, 포수·보라매·모리꾼은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사이의 갈등 사이에서 항상 억눌림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을 寓意的이면서도 諷刺的으로 묘사한 것이다.

極限狀況에서도 살아갈 방법을 취하는 것이 민중의 삶이요, 그것이 곧 역사로 이어진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포위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나약한 존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혈연으로써의 보호본능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보려는 끈질긴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투쟁의 전개로 얻어지는 것이다. 민요에는 지배계급에 대한 구체적인 항변은 보이지 않지만 민중의 각성과 사회의식으로 인간사회, 특히 지배 계급에 대한 반발의식이 움트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6) Alan Dundes, 『The Study of Folklore』, Prentice Hall, Inc., 1965, P308.

2. 家族意識

가족은 인류사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가장 중요한 제도다.¹⁷⁾ 왜냐하면 인류문화는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제도를 유지 존속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이란 婚姻과 血緣에 의해 이루어진 부모와 그 자녀들을 기본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며, 때로는 부모와 자녀 뿐 아니라 부모의 형제자매 조부모도 구성원이 되어 같은 담장 안에 함께 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가족에 대한 개념은 공동의 거주, 경제적 협력, 그리고 종족보존의 특성을 갖는 사회집단이라는 견해를 고려할 때 동일한 가족에 거주하면서 공동의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同祖同姓의 친족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조직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은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다양한 행위에 대한 문화적 기대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결정짓고 영속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 우리 사회가 전통사회에서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혼란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가족의식이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은 궁극적으로 그 존재와 형태에 있어 지배적인 생산양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전통사회를 살펴보고자 할 때 가장 주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농업을 생계기반으로 하는 농경사회라는 점이다. 쌀 농사를 주 생업기반으로 한 농경사회는 전통사회의 家族, 親族 및 기타 宗教, 藝術 등의 모든 생활의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전통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의식을 알아야 함은 당연하다.

가족이라는 틀속에는 인간관계의 의미·역할·기능 등이 함축되어 있다. 전통적 가족은 父系로 구성되어 있다. 부계란 成員權, 財產權, 祭禮義務 등 집안의 의무와 권리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승계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가족원 가운데 남자는 성원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속적인 반면, 여성은 결혼 전에는 친정의 성원이었으나 결혼 후에는 시집의 성원으로 바뀐다. 여기에서 男兒選好思想이 뿌리깊게 인식되었고 한 여인의 尊卑가 아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느냐에 달려있게 마련이었다. 왜냐하면 남자는 곧 노동력이요, 집안의 대를 잇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17) 尹德重, 「最新社會學」, 형설출판사, 1986, P255.

에헤	에헤라	방아호	
불빛을	등에지고	진흙물에	들어서서
이농사를	이리지어	어느누굴	봉친하나
에헤라	방아호(중거리)		
늙은부모를	봉친하여	젊은아내를	배채우고
어린자식	길러내어	부귀영화	보자꾸나
----(중략)			
여보아라	농부들아	도랭이쓰고	삿갓쓰고
부지런히	일잘해라	술잘먹고	일잘해라
우리농부	일잘한다	에헤라	방아호 ¹⁸⁾

노동요는 대체로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사실을 전개시키는데 위 노래는 농민과 지주가 한탄과 격려로 각각의 위치에서 소망을 토로하고 있다.

위 민요는 논매기 노래다. 농사짓는 일의 힘들과 '이리 지어'라는 말속에 은연중 자탄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단조로운 구성을 이루면서도 새벽녘에 들로 나서는 모습과 논매는 장면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민요의 品格을 한층 돋구었다고 할 수 있다.

어둠이 깔려 있는 未明에 허리 굽혀 논을 매는 마음이 좋을 리 없다. 품을 팔아서 호구지책을 하는 처지가 스스로 처량하다. 따라서 진흙탕이 지겹고 부모 봉양이 난감하기만 한 것이다. 여기에 地主의 격려가 화답으로 대응한다. 부모 봉양과 아내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미래의 꿈인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농사일에 힘쓰자는 현실적 근로의식 고취다.

목적의식의 유무에 따라서 하는 일이 즐거울 수도 있고 권태로울 수도 있다. 곧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현실적이고 목적의식이 뚜렷하다면 그 고통은 희망으로 반전될 수 있는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농사일이지만 자신과 가족의 삶의 풍요를 위한 땀이기에 참아낼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부모를 봉양하고 다음 젊은 아내를 배부르게 먹이고 그리고 자식들을 기를 수 있는 일이니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소박한 가족의식 속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부모와 자식간에 敬愛의 미덕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18) 忠清北道, 「忠北民謠集」, 全光印刷, 1994, P416.

있다.

민중들의 소망은 소박했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고된 농사일로 시달리지만 노동의 대가로 바라는 것은 온가족이 일년 동안 먹을 양식이며, 부귀영화의 소망은 젊은이는 無病이요, 늙은이는 長壽일 뿐이다. 따라서 전반부에서 노동의 고통에서 오는 한탄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기대감과 가족 간의 기쁨을 교환하는 화목의 場으로 바뀐다. 이것이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가족의식인 것이다.

3. 忍從과 志節

우리 민족의 정서 가운데 하나가 은근함과 끈기다. 힘이 약한 민족, 또는 개인으로 볼 때는 무던히 참는 일이 지혜로운 삶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침략자나 강한 자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처절한 굴종 아니면 체념이었다. 또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민중의 곤궁한 삶은 현실의 고통과 험난한 路程에 힘겨울 수밖에 없었다.

민중의 忍從과 志節의 바탕은 悲哀와 恨이다. 그 비애와 한은 생활고나 지배계급의 횡포로부터 비롯되기도 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신세 한탄이나 시집살이의 고달픔에서 나타난다. 생활고에서 헤쳐 나오지 못하는 애절한 비애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인식에 기인하며,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에서 오는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된다는 체념적 낙관의식으로 바뀐다. 사회제도나 사회관계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한탄이나 시집살이의 고달픔도 현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그들의 비애의 해소는 부당한 현실을 긍정하는 한편, 굴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그러한 비애와 한은 민중의 가슴에 쌓이면서 屈從과 諦念이 된다. 그러나 그 굴종과 체념은 완전한 자기포기가 아니라 앞날의 의지를 펴기 위한 수단으로 민중의 의식 속에 忍從과 志節로 치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종과 지절의 정신은 유교의 도덕률 속에서 살아가는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에게는 필수적이었다. 삼중지도의 엄격한 윤리규범은 출가 전에는 부모의 뜻을 거역할 수 없고 출가한 후에는 남편과 자식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정신은 노동요 중에서도 특히 婦謠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민중의 지절과 인종은 고통의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헤쳐나가는 의지도 강했다. 가난한 생활 중에도 내일은 넉넉해질 수 있다는 의지를 잃지 않았으며, 시집살이의 역경 속에서도 슬픔과 원망을 베를에 쓸어버리는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 양반들의 폭정에도 그들의 불만은 안으로 삭일 뿐 겉으로 표출되지 않았다. 지절과 인종은 아픔을 수용하는 消極의 自己表現이다. 그들은 외부세계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운명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 따라서 일면 나아한 모습이지만 궁극에 가서는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민중의 인종은 살아남기 위한 생활의 지혜인 것이다.

이내손목	씨아들은	뱅뱅뱅뱅	잘도는데
이사람의	사주팔자	어떠케나	생겼길래
우리집에	저명칭이	나안고서	못돌아가네
안방에는	시어머니	눈만뜨면	잔소리고
사랑방에	시아버님	나만보면	호명이네
어린새끼	눈치없이	칭얼칭얼	젓달라고
하나있는	시누이년	여기저기	말썽피네
시집온지	삼년되두	친정가란	말도없이
해가뜨면	들일하고	밤이오면	길쌈이네
애고답답	여자신세	길쌈으로	늬어가네

-----(하략)19)

시집살이요는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봉건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모든 불행에 대하여 순종하거나 타협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당한 속박을 고발하고 이에 항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노래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행을 강요하는 도덕적 구속을 인정하지 않고 고발과 항거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 노래이다. 시집살이요는 여성들이 부르던 부유로서 봉건적 가족관계 속에서 겪는 여성의 한스러운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시집살이의 고뇌가 구구절절하게 배어 있는 이 노래는 묘미 있는 언어와 해학적인 표현으로 그 苦惱를 諦念, 超越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노래는 베를 짤 때 부르는 노래로 첫머리에서 남편의 무뚝뚝함과 시부모의 잔소리, 그리고 자식의 칭얼거림과 시누이의 말썽 속에 낮에는 들일하고 밤에

19) 忠清北道, 「忠北民謠集」, 全光印刷, 1994, P485.

는 길쌈을 하는 고통을 한탄조로 표현했다. 시집살이의 고달픔과 속박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루하루의 일상사가 흥취와는 거리가 멀다. 자상함은 찾을 수 없는 무덤덤한 남편은 베틀만도 못하고, 안방과 사랑방을 차지하고 호령만 하는 시부모는 무섭기만 하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어린 자식과 시누이의 말썽은 꿀일 사이가 없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한탄과 늠름밖에 없다. 그래서 白玉같은 얼굴은 호박꽃이 되고, 고운 손은 오리발이 되는 여자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개부는 밤새도록 베를 짜면서, 원망과 한탄을 베틀 속에 담으며 신세타령과 베틀의 구조를 적절하게 조화시켰다. 베짜기노래는 여성이 일상의 아픔을 여성 자신이 자연스럽게 부른 민중의 노래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고 시원스럽게 발산한 면이 특징이다.

전통사회에 있어 부녀자의 삶은 桎梏의 연속이다. 또한 그 고통의 질곡은 벗어날 수 없는 부녀자의 숙명이었다. 도덕적 규범과 생활의 애환은 베틀을 상대로 항거하고 거부한다고 하여 시원하게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스스로 체득했다. 그것은 곧, 처음에는 자포자기요 체념이었으며 그 체념은 다시 의지로 굳어져 인종과 지적으로 승화되었다.

4. 職業意識

한 사회의 직업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를 지탱하는 다수인의 전통적 가치가 무엇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통사회를 지배해 온 主導的 價値는 유교적 이념이었다. 유교적 원리는 그 이론적 기반을 인도주의에 두면서 그 실천 도덕으로는 효사상이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효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논리와 이에 따른 인간관계의 원리는 상하의 서열관계로서 이것이 사회구조 속에 제도화되어 있었다. 예컨대 治者階層과 被治者階層의 구분을 위해 君臣·父子·夫婦·長幼와 같은 모든 인간관계를 縱的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유교 사상은 규정하였고 이러한 인간관계는 신분, 혈통 및 직업을 통해 밀받침되어 있었다.

조선사회는 기본적으로 신분사회였다. 조선사회의 신분구성은 대체로 兩

班·中人·農民·賤民의 네 가지 성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각기 직업은 세습되고 尊卑貴賤이라는 유교적 논리에 따라 교류나 통혼이 금지되었고 심지어 거주지역을 달리할 만큼 엄격한 신분간의 차등이 법제화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양반은 조선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계를 가지는 사회계급으로서 신분적 특권을 누리며 정치권력과 학문을 독점하였으며 노동의 부담을 지지않는 특권적 신분이었다. 양반 다음 가는 계급은 중인으로서 이들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거나 중앙정부의 말단 행정관리 또는 지방의 鄕吏로 종사한 신분집단이었다. 良人 또는 常民은 생산과 천역을 담당해야 하였던 농민들과 수적으로 농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商人과 手工業者들로 구성된 평민의 신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선사회의 최하위의 신분으로서 천민은 주로 노비로 구성되었으며 주인에게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생산을 담당하거나 사역에 사용되었다.

전통사회에서 士農工商에 대한 의식은 사회계층 및 직업관 형성에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작용하였다. 士民은 學習道藝者, 常民은 通四方之貨者, 農民은 播植耕稼者, 그리고 工民은 巧心勞手以成器物者로 그 직업이 다름을 구분하였다.²⁰⁾ 그러나 士는 農에서 나온다²¹⁾ 든지 士民 가운데 士와 農은 조정에서 벼슬하였다.²²⁾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민의 사회적 지위가 확고했으며 그들의 직업의식 또한 자부심이 깔려 있었다.

올라간다	올라가	산은침침	금수산
천하절경	옥순봉	물은출렁	한강수
철석철석	뱃전에	한강수가	덤빈다
요놈들아	파도야	머름먹어	살니
구름먹어	살니	지름먹어	살니
부자통을	먹었니	목화숨을	먹었니
바람통을	먹었지	거북바우	다왔다
주막거리	지기다 ²³⁾		

20) 임희섭, 박길성 편, 『오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1993, P42.

21) 『訥齋集』, 卷 2 便宜 二十四事. '士出於農'

22) 『成宗實錄』, 卷 18 成宗 3年 6月 己巳.

古者四民之中 士農爵於朝

23) 忠清北道, 『忠北民謠集』, 全光印刷, 1994, P47.

문화는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제하지 않고 꾸준히 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통문화 역시 생활 공간의 확대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단절과 지속 그리고 변화를 계속해 왔다. 또한 지역간·계층간 차이로 각 사회마다 생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독특한 방식을 취했고 이것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한 생활 양식으로 존재했다.

직업관 또한 시대 상황에 따라 貴賤의 浮沈을 가져와 오늘날은 士農工商의 位階보다는 權力과 金力에 근접할 수 있는 분야가 각광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사회에 있어 직업관은 매우 엄격했다. 양반과 중인 그리고 평민과 천민이 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적이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았다. 백일에 종사하는 것은 賤役을 하는 賤民의 몫이다. 하지만 위 노래에 나타난 뱃사공의 철저한 직업의식과 소명의식은 직업에 대한 열증이나 신세 한탄을 찾을 수 없다.

충북지역의 지리적 여건상 뱃노래는 그리 흔치 않은 노래다.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강줄기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뱃노래는 일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북부지방, 곧 단양지역은 한강의 상류로 남한강 줄기가 절경과 어우러져 있어 자연 환경에 걸맞는 뱃노래가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육상교통의 발달로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거대한 댐에 의한 쾌속선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민요가 지역의 향토성과 생활여건에 따라 생성되고 소멸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위 노래는 뱃줄다리는 노래다. 남한강 줄기에 펼쳐진 주위 환경이 매우 서정적이다.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뱃머리가 만나는 것은 첩첩한 금수산이요 절경의 옥순봉이다. 아래로는 출렁이는 강물이 길을 막는다.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도 주위 경관을 감상하며 힘들을 이겨내는 사공의 지혜가 이채롭다. 뱃사공으로 볼 때 강은 생활의 안식처요 평생을 함께 할 터전이다. 따라서 거센 파도도 이웃과 같다. 의인법을 써서 파도와 대화를 하는 장면은 자연을 달래기도 하고 옥박지르기도 하면서 목적지에 이르러자 하는 뱃사공의 자연친화적인 삶과 현장의 구체적인 삶을 반영한다. 자연을 거역하기보다는 조화와 순응을 앞세우고 노 젓는 일을 천명으로 받아들이기에 힘든 노동이 즐겁기만 하다. 따라서 목적지인 거북바위가 보이고 주막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민중의 의식은 이와 같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건전한 직업의식이 밑바탕을 이룬다. 그들은 더불어 사는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곤궁한 생활과 힘든 노동일지라도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일의 직분을 다하기에 즐겁기만 한 것이다. 이것이 민중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自己滿足이요 투철한 職業意識인 것이다.

5. 戀慕意識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한 노동행위는 많은 생산물을 얻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므로 인간은 도구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생산물을 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도구 이외의 방법으로써 인간은 노동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요의 내용이 직접적인 노동의 활동을 벗어나 남녀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예찬, 노골적인 성묘사, 혈연관계의 갈등 등을 해학과 풍자로 표현하여 노동의 피로를 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스스로 조성하였다.

민요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 또한 부르는 사람이어서 주변이나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부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요의 내용은 분위기에 따라서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퇴폐적이며, 생활감정을 정제하지 않고 표현했기에 거칠고 조잡할 개연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민중의 성정을 진솔하게 나타내어 허식이 없고 감정과 정서의 표현이 매우 절절하다는 면에서 민요의 존재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곧 생활 현장에서 불려지며 노동의 삶 속에서 기능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나라한 인간성의 표현과 풍부한 정서가 꾸밈없이 率直, 坦白하게 표출되었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서는 애끓는 정한, 곧 그리움에 있다. 그러한 연모의 정이 민요에 깔려 있다. 婦謠에는 원한을 노래한 것이 많고, 農謠에는 노골적인 연정을 토로한 염정성이 풍부한 작품이 많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이성을 가까이 하고 싶은 심정은 보편적인 정서다. 더욱 유희적인 틀 속에 매여 있으면서 피지배자의 설움과 노동의 고역 속에서 갖는 戀慕의 정은 삶의 淸涼劑와 같은

구실을 하며, 내일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민요에 나타난 연모의 정은 때론 구구절절 애절하기도 하고 저속하고 비천한 淫辭일 경우도 있지만, 오랜 전승을 통하여 세련된 묘사와 감정을 억누른 압축된 표현으로 밍살스럽지 않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면도 있다.

민요에 있어 시적 자아는 임과의 현실적 거리를 노동의 피로나 자신의 처한 여건으로 돌리고 그러한 고통을 극복한 위에서 임과의 惽—을 念願함으로써 서정적 긴장을 해소하려 한다. 다만 민요에서 말하는 임은 추상적인 존재로 노동의 고달픔과 지루함을 잊고 즐겁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민요를 부르는 사람의 민요 속의 임은 변함없이 임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다.

상주야	함창에	공갈못에	
연밭조올밥	따는	저큰아가	
연밭조올밥	내따주께	내품에	잠이나자게
잠자기는	어렵잖으나	연분은잠을	어찌나자라
연분이	따로있나	자고나면	연분이지
동해동천	돋은해가	정든님을	못다보고
서산에	해가즈네	해야해야	거기잠깐머물러라
서산에이	즈는해는	즈고싶어서	즈나
지부를	못이겨서	서산에	해가즈네
앞들	논닷마지기	여기꼬구	저기꼬구
양석자리어만	꼬바나주소	꼬끼는	꼬바요마는
제재마누래	거기다	꼬부라네 ²⁴⁾	

본래 낙천성이 강한 우리 민족은 억압과 노동 등의 시달림에서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고 인생을 즐기려는 데서 이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때로는 은근하게, 때로는 積極인 求愛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본성인 성에 대한 것은 흥미가 있고 관심의 대상이었다. 性を 주제로 한 노래는 노동의 피로를 풀어주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으며 몰두하다보면 일의 능률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대상으로 인하여 시간의 흐름을 잊을 수 있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엮어갈 수 있는 것이다.

24) 忠淸北道, 『忠北民謠集』, 奎光印刷, 1994, P592.

전통사회에서 성에 대한 표현은 양반과 평민이 극히 대조적이었다. 儒敎의 道德律에 얽매인 양반은 성이란 삼가고 숨기는 아름답지 못한 삶의 한 부분이 었다. 성에 대한 표현은 점잖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며 품위가 낮은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폄하하였다. 그러기에 그들의 남녀관계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種族保存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도덕적 타락 중에서도 성의 紊亂을 집안의 가장 큰 恥部로 생각하여 혈연적 관계를 끊는다든지 목숨을 끊게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민들의 인식은 달랐다. 성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요소였다. 노동력을 배가하고 경제력을 신장시키는 길은 오직 노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산하는 일뿐이다. 또한 노동의 피로와 매일 되풀이되는 단순한 농사일의 無味乾燥함에서 벗어나 삶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따라서 평민에 있어 성이란 삶의 潤滑油이며 活力素 역할을 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성은 다소 직설적이고 遊戯的이며, 신성한 듯 하면서 露骨的이었다.

위 노래는 問答形式을 취한 모내기 노래로 새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연밥 따는 처자를 부르는 부분으로 남녀가 만나는 대목이다. 처음부터 대뜸 그리움을 하소연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연밥 따는 일을 도와줌으로 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젊은이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 있다. 내 품에 잠을 자기를 청하는 바람에 處子의 말이 유연하다. 부모의 허락이 없어 할 수 없다는 말 속에 젊은 여성의 감추어진 사랑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표현이 매우 묘미가 있다. 남녀의 그리움이 점잖게 표현되어 모를 심는 논과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이 남녀와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낸다.

중반부는 끈질긴 구애와 함께 하루해가 빨리 저물어 감을 안타까워하며 태양을 바라보며 하소연한다. 그 말에 處子의 和答이 은유적이다. 서산의 해가 지고 싶어서 지지 않듯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야 하는 마음이 아프기만 하다. 황혼에 당시의 윤리적 틀을 허물지 못하고 서로 헤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서로 갈구하고 그리워하는 심성이 순수하고 솔직 담백하게 들어 있다.

후반부는 모를 심고 있는 농부의 대화로 아주 대담하고 노골적이다. 부지런히 모를 심어달라는 부탁에 여성의 성을 '거기'라는 표현으로 해학적으로 받아

넘긴다. 자연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끌어와서 남녀관계를 묘사하는 수법은 민요에 흔히 나타나는 바, 심는다는 뜻의 '꽃는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언어를 사용하여 심는다는 뜻과 남녀의 성관계를 겹치도록 하는 민중의 해학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일면 지나치게 저속하고 노골적인 면도 있지만 민요가 어떤 대상을 놓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일상생활 중에 자신들의 꾸밈없는 내면을 여과없이 드러냈다는 진솔함에서 보면 지배층의 가식적 문학과는 또 다른 면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구절의 '제재 마누래'라는 표현은 전통사회에 있어 농민들의 양반에 대한 의식을 단정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에서 볼 때 지주에 대한 불만이 마누라로 향했고 그것도 여성의 중심을 지칭한 것을 보면 양반에 대한 반발과 불평을 해학적으로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민요의 내용은 복합적이다.戀情과 勤勉, 그리고 양반에 불평하는 농민의 모습을 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젊은 남녀의 그리움을 진솔하게 표현함과 아울러 성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6. 共同體意識

사회집단은 사적 생활과 대규모 사회를 생생하게 연결시켜 준다. 이것은 민중에게 안정과 생활의 영속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민중의 가치·태도·그리고 행위를 형성시킨다.²⁵⁾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집단의 각 구성원에 공통되는 자발적인 행위와 정신적 내용으로써 개인의 의식을 초월해서 존재하여 이것을 규제하는 힘을 가리킨다.

민요는 작가는 가족공동체나 부락공동체에서, 크게는 민족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간에 의하여 생성되고 불리어진다. 따라서 민요는 그들 구성원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공동체 내부의 동질감 형성에 이바지하기도 하면서 구성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삶의 전통을 지탱시켜 주는 중요한 媒介體의 구실을 담당한다.

전통사회에 있어 우리 민족은 노동의 능률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나

25) D.Light, S.Keller, 「Sociology」, 한울, 1987, P185.

두레, 혹은 품앗이 등의 사회조직을 갖고 있었다. 공동체 의식을 도모하는 의식을 행하며, 자연스럽게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 잔치를 베풀어 마을의 풍속이 유지되도록 하여 촌락공동체의 안녕을 圖謀하였으며, 농사일에 농악소리나 날라리소리를 들으며 작업에 임했다. 두레와 같은 공동노동의 큰 특징의 하나는 노동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노래하며 일하는 것'이다. 노동 중에 노래를 잘하는 일꾼이 '앞소리' 또는 '선소리'라고 불리우는 선창자로 선정되어 먼저 선창을 해서 먹이면 후창자들은 '뒷소리'가 되어 노동을 하면서 일제히 받아서 따라 부른다. 이 때 노래에 더욱 흥을 돋우고 박자를 넣기 위하여 논두둑이나 일꾼들 뒤에서 한 사람이 농악의 팽파리나 북이나 장고를 쳐서 반주를 하기도 한다.

공동체 의식은 사회생활 내지 개인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든지 自我成就를 위해서는 혼자 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동적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활동 그 이상, 곧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에 있어 공동체 의식은 생산과 확대, 재생산을 추구하는 삶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랑이 지금까지 불리어지면서 민중을 공동체의 테두리 속에 두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노동요는 대체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할 때 부르기에 자연히 先後 唱의 歌唱方式을 택하게 된다. 선후창의 가창방식은 선소리를 메기는 사람이 먼저 의미 있는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를 받아서 여러 사람이 함께 뒷소리를 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 노동요는 대부분이 여러 개의 장으로 나누어지면서 후렴구를 사용하는 연장체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그 가사는 해학과 풍자가 넘치고 그 곡조는 구성지고, 율동적이며, 낙천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잘두하네	잘두하네	우리농부들	잘두한다
에에	에허애	에헤이	에허야
이논뻬이	얼른매고	저논으로	건너가세
에에	에허애	에헤이	에허야
왔다갔다	하지말고	힘을내서	논을뜯세
에에	에허애	에헤이	에허야
노세노세	젊어서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에에	에허애	에헤이	에허야

먹자구	하는일인데	아니놓고	무엇하나
에에	에허애	에헤이	에허야
놀때는놀아도	이논뻬이	뜯고나서	놀아야지
에에	에허애	에헤이	에허야
이논뻬이	다못뜯으면	내일와서	뜯어야하네
에에	에허애	에헤이	에허야
왔다갔다	하지말고	부지런히	뜯어가세
에헤	에허애	에헤이	에허야

----- (하략)²⁶⁾

위 노래는 일을 하는 주체도 농부요, 격려하고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는 것도 농부다. 전반적으로 농부와 노동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져 일을 신명나게 하는 촌락의 공동체 의식이 물씬 풍긴다. 형식은 노동의 피로를 덜기 위해 앞소리와 뒷소리로 나누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선창자의 앞소리에 ‘에에 에허애 에헤이 에허야’라는 뒷소리로 和答하는 問答式이다.

전반부는 근면을 강조한다. 좁은 땅에서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없이 일을 해야 한다. 곧 어느 생업보다도 부지런해야만 했던 농업은 근면성만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길이었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 농사 준비를 하고 날씨의 변화에 따라 모를 심고 논을 매는 농민들의 삶은 긍정적인 사고와 순박성, 그리고 근면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중반부는 유희성이 삽입된다. 그러나 농요의 유희는 생산을 배가하기 위한 유희다. 단순한 유희의 단계를 넘어선 휴식의 유희요 내일을 위한 준비의 유희며 생활의 활력을 위한 유희였다. 때문에 그러한 정도에 넘치지 않는 유희는 노동과 직결된 공동체적 의식이 깔려 있어 곧바로 하던 일로 전환되는 복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일과 놀이의 조화로운 융화가 촌락민이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후반부는 근면과 협동을 권장하며 논매기의 마무리를 뒷소리의 반복으로 이끈다. 그 뒷소리는 노동의 고달픔으로 인하여 가락이 유장하고 한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을 마무리하는 즐거움으로 신명나게 호미 장단에 어깨춤을 추는 흥취로도 노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뒷소리는 여러 사람이 행동을

26) 忠淸北道, 『忠北民謠集』, 奎光印刷, 1994, P.478.

통일하여 농사일의 단순함을 지루하지 않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공동체 의식은 한 개인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농농사의 성격상 농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지혜였다. 그러한 의식은 구성상 가족 단위에서 혈족으로, 다시 촌락에서 한 지역으로 결국에는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곧 민요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은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민중의 의식이며 삶의 반영인 것이다.

7. 現實認識

민요는 민중의 삶이 개인과 사회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민요에 나타나는 현실인식은 肯定的 現實認識과 否定的 現實認識으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현실인식은 인식의 시각을 외부세계로 돌리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여건을 자아의 세계 속에서 해소하려는 의식이다. 대부분의 민요는 이러한 긍정적 현실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의 심성이 순박한 것과 정직하면서도 安分知足하는 생활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 현실인식은 자아와 현실과의 만남이 불일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궁핍한 현실과 가정과 사회제도의 속박에서 자신의 의지가 억압되었을 때 부정적 현실인식이 드러난다. 따라서 부정적 현실인식은 지배층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된 하소연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식이 지배층에 대한 풍자로 표현되는 데 민요에는 그리 흔치 않은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민중의 의식이 건강했음을 알 수 있다. 민중의 삶이 桎梏과 逆境의 고달픈 생활의 연속이기에 민요에는 그러한 삶의 고통이 꾸밈없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대체로 민요는 삶의 체험을 노래한다. 婦謠에 나타난 삶은 시집살이의 고달픔과 시집식구와의 관계, 남편의 무뚝뚝함에서 오는 무의미한 삶, 노동의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 섞인 낙천성이 중심이 되어 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양반과 평민의 관계, 즉 지배층과 피지배층과의 갈등 속에서 오는 내적 고뇌를 신랄한 풍자로 표출하고 있다.

어얼	어얼허구	저러하네	
지어보세	지어보세	태고시절	전래농사
어얼	어얼허구	저러하네	
천하대본	농사로다	어떤사람	팔자좋아
어얼	어얼허구	저러하네	
고대팡실	높은집에	호의호식	하건마는
어얼	어얼허구	저러하네	
우리같은	농부들은	눈만뜨면	이짓인가
-----(중략)			
동기간에	우애있고	이웃간에	화목하면
어얼	어얼허구	저러하네	
이아니도	좋을손가	왕후장상	부뤄말고
어얼	어얼허구	저러하네	
농사일에	돈독하세 ²⁷⁾		

논매기 노래는 모를 심고 난 후, 김을 맬 때에 불러졌는데 노동과 능률, 노동과 휴식에 관계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할 때의 리듬을 일정하게 집단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감소시키고 흥을 돋구어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논매기 노래는 일정한 리듬을 반복하고 공동체적 동질성을 공유함으로써 집단의 행동을 일치시켜 주며, 나아가 공동체의 결속과 통합을 가져오는 사회적 기능도 띤다.

위 노래는 전반부에서 뒷소리로 흥을 돋우면서 지배층에 대한辛辣한 諷刺를 直說적으로 나타낸다. 앞소리와 뒷소리로 이루어진 先後唱의 민요로 농민들의 自矜心과 함께 양반사회와의 乖離로 인한 비판과 자조가 밀바탕에 깔려 있다. ‘천하대본’과 ‘눈만 뜨면 이것인가’라는 상반된 인식 속에 양반사회의 好衣好食하는 삶과 숙명적인 농민들의 고달픈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었다. 이것은 전통사회 농민들의 삶이 걸오로는 지배계급에 순종하는 듯한 나약한 모습을 지닌 듯 하지만, 내적으로는 지배계급을 부정하고 질시하는 양상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반부는 다시 농부들의 소박한 마음으로 돌아온다. 벼농사에 적당한 풍우가 있고 삼복더위의 따가운 햇살이 있어 농부들을 본연의 직분에 매달리게 한다.

27) 忠淸北道, 「忠北民謠集」, 奎光印刷, P598.

그만큼 농부들의 의식이 한탄하고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자연에 순응하고 땀 흘려 일하는 긍정적 사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마음은 벌써 풍년을 이룬 가을로 가고 있다. 뒤주를 가득 채워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인간적 도리를 다짐한다. 현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양반사회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미래에 대한 풍요와 화목으로 치환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후반부는 전통사회의 윤리 도덕이 그대로 나타난다. 三綱五倫의 덕목이 실천적으로 나열된다. 조상과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가르치며, 동기간과 이웃 간에 화목하고, 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도리를 강조한다. 따라서 양반사회의 고대광실도 부럽지 않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自足感으로 오늘의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다. 삶의 애환과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 그리고 삼강오륜의 덕목을 바탕으로 흥을 돋우고 공동체적 동질성을 조장하며 일의 능률을 극대화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IV. 맺음말

노동요는 노동현장의 노래다. 노동요는 혼자, 또는 여럿이서 일을 할 때 흥을 돋우고 호흡을 맞추어서 피로를 잊게 하며 작업능률을 倍加하기 위해서 부른다. 그리하여 민요에는 민중들의 애환이나, 그들의 이상과 정서 등이 담겨져 그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가슴 속에 안겨져 살아온 것이다.

노동요는 민중의 삶과 직결된 민요다. 평범한 민중의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현실적인 의식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노래 속에는 그들의 사랑·시집살이·生活苦·休息·戀情·家族·職業과 社會意識 등이 복합적으로 융해되어 있다. 민요의 주제를 파악할 때는 민요 속에 내재한 민중의 꾸밈없는 의식과 감정을 전면적인 고찰을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노동요의 참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노동요에 반영된 민중의식을 사회의식·가족의식·인종과 지절·직업의식·연모의식·공동체의식·현실인식 등 주제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노동요의 내용적 특징은 첫째, 민중의 사상, 감정을 담은 일상적인 노래로 民衆意識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정서의 표현이다. 곧 내용이 화려하지 않고 기교를 부리지 않으며 수식이 없다. 둘째, 現實 指向의이다. 민중의 생존은 노동의 연속성에 달려 있다.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갈등 속에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는 그들에게는 觀念的이거나 抽象的인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과거에 집착하거나 먼 훗날에 대한 기대는 사치에 불과할 뿐 체험적인 현실만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自己表現으로 되어 있다. 생활의 전반을 자연과 더불어 영위하는 그들에게는 세련된 묘사나 복잡한 수식은 어울리지 않는다. 기교 없는 솔직 담백함이 민중의 생리에 적합하다. 넷째, 常套的 語句로 표현한다. 단순, 소박하기에 생활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낼 뿐 침삭이나 개성의 노출이 없다. 따라서 즉흥적인 후렴구나 관용구의 반복이 자주 나타난다.

지금까지 「忠北民謠集」에 수록되어 있는 민요 중 노동요의 특성과 주제를 부분적으로 살폈다. 충북민요 전반에 나타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고찰은 다음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주제어: 충북지역, 노동요, 의식

참고문헌

- 金榮敦, 「濟州道民謠研究」, 東國大博士學位論文, 1983.
 김무현, 「한국노동민요론」, 集文堂, 1986.
 民俗學會, 「韓國民俗學의 理解」, 문학아카데미, 1994.
 朴晟義, 「韓國文學背景研究 上」, 二友出版社, 1975.
 ———, 「韓國文學背景研究 下」, 二友出版社, 1975.
 성병희·임재해, 「韓國民俗學의 課題와 方法」, 正音社, 1986.
 尹弘老, 「江原道民謠의 意味網」, 國文學論集, 1975.
 任東權, 「韓國民謠의 研究」, 宣明文化社, 1974.

- 임재해,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 지식산업사, 1991.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 一潮閣, 1981.
趙東一, 「敘事民謠研究」, 啓明大學校, 1983.
崔鳳永, 「韓國人の 社會的 性格」, 느티나무, 1994.
任東權, 「韓國民謠集」, 集文堂, 1961-1981.
忠淸北道, 「忠北民謠集」, 全光印刷, 1994.

<Abstract>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Chungbuk Area Labor Songs

Yeon, Hae-Jin

I probed into the popular consciousness reflected in the labor songs. The labor songs, which have been generated spontaneously so as to double the action unification of workers and the fruits of hard work, show us joys and sorrows, value, consciousness, and emotion owned by the farm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songs are as follows:

First, they are everyday songs containing the thoughts and emotions of the people. They are also the expressions of their simple and artless lives. Therefore, the contents of those songs don't have some magnificent side, use a trick, and have an ornamentation. Second, they are absorbed in the actual. The survival of the people depends upon the continuation of labors. Feeling all kinds of worth and conflict in their working jobs, the poor people haven't known an ideological or abstract world at all. Therefore, they have thought much of a story of their personal experiences rather than of the expectation about the past or the future. Third, they are made up of a kind of direct self-expressions. For the people who have lived together with nature, refined descriptions and complex ornamentations were not appropriate. They were familiar only with artless honesty and naive simplicity. Fourth, they are expressed in many hackneyed words. They don't marshal all sorts of flowery words, nor show a marked individuality. They show us only the pure emotions of the people as they are.

Labor songs have advanced in good order such as those for farming, those for weaving, those for milling, and those for picking. In the northern

parts of Ch'ungbuk, Danyang and Chech'ŏn, the labor songs for dry field farming and those for picking something had a great vogue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e central and southern parts of Ch'ungbuk — Ch'ŏngwon, Chinchŏn, Poŭn, Yŏngdong — the labor songs for tilling a rice field ranged all over the region. The labor songs for weaving have spread everywhere from the northern parts to the southern parts of Ch'ungbuk.

Key words: Chungbuk Area, Labor Songs, Consciousness